

# ‘차 소환’ 대선주자 여론 향방 촉각

### 민주·국민의당·바른정당 역풍 우려 입장 표명 신중 이인제·김관용·유승민 TK표심 겨냥 ‘불구속’ 주장

정치권과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수사에 대한 여론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 전 대통령의 출두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와 향후 사법처리 향방에 따라 49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은 대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과 주자들이 처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도 높은 사법 처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자칫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제기되거나 보수층이 결집하는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는 다른 자세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역사의 법정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전직 대우를 해야겠지만, 법과 원칙에 입각해 충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주자들도 구속 여부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민주

당 문재인 전 대표는 앞서 “구속이나 불구속이냐는 문제는 대선주자들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측 이철희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수사를 한 뒤 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지 여론이나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 기대한다”면서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원론적 언급을 했다.

그러나 TK(대구경북) 등에서의 표심을 염두에 둔 듯 본 경선에 오른 한국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박 전 대통령을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와 다름없다면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검찰의 존재 이유”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춰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오신환 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전날 TV 토론회에서 불구속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고, 남경필 지사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 온도 차를 보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非文 단일화 불가능”

### “바른정당과 연대 안 해... 대선 국민의당 후보-文 양자대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21일 비문(비문재인) 대선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에 견제하고 있는 이상 어떤 경우에도 합쳐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설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정체성이 다르다고 하면 지지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결국 이번 대선은 4월 초 후보가 확정되면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전 대표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 “처음에는 1차에서 끝날

것으로 봤는데 의외로 안희정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불어와 요즘은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본다”며 “이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 박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표는)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 같다”며 “우리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다가 실패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처음에는 1차에서 끝날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정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렸다. 김영호 사무처장 등 선관위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도 같은날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美 6자회담 수석대표 대선주자 회동

### 조셉윤, 안희정·유승민 면담... 오늘 문재인·안철수 등 만나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Joseph Y. Yun)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부 국내 대선주자들을 만나 외교현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만났다.

안 후보 캠프 측 김진욱 공보특별보는 이날 “오늘 오전 9시15분부터 10시15분 까지 서울 모처에서 1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며 양측의 만남 사실을 공개했다.

김 특보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윤 대표 외에 마크 네퍼 미국 대사 대리가

참석했으며 양측은 면담을 통해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유 의원 측도 이날 면담 사실을 공개했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유 의원과 윤 대표가 오전 광화문 인근에서 만났다”며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전날 방한한 윤 대표는 다음날인 22일에는 문 전 대표 측 외교전문가인 ‘국민 아그레망’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도 회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 “전장부품산업 기반 조성·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 창출”

### ‘문 캠프’ 주요 인사들 광주서 지역공약 실행계획 설명 文, 국민이 만드는 공약 캠페인 시작... 이르면 오늘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 선거캠프인 더문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전 대표의 광주·전남 공약 실행방안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문캠프의 호남 출신인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 강기정 종합상황실장, 김태년 특보단장, 이병훈 광주선대본부장, 신정훈 전남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문 전 대표가 광주에서 발표한 지역공약의 실행계획과 주요 공약의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공약에 대해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은 “전장부품산업 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성공모델 창출 등을 반영했다”며 “정부가 어떤 기업을 특정해 지역에 데려오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대책을 세워 공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공약에 군공항 이전이 빠진 이유에

대해 이병훈 광주선대본부장은 “시장에서 8개 공약을 만들어 중앙당에 보고했는데 이 중 6개가 반영됐다”며 “군공항 이전 등이 빠지는 것은 전남도와 갈등문제 등이 있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이 광주시와 전남도 계속사업이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요구했던 각종 사업과 중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확정했지만, 그간 정부에 의해 고려 안됐던 예산을 이제부터라도 투입하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이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직접

받아 이를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시작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민과 준비된 후보의 만남”이라며 “국민이 쓰는 출마선언문에 이어, 국민이 만드는 대선공약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이용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010-7391-0509’를 게재했다. 뒷자리 ‘0509’는 조기대선일인 5월9일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이르면 22일 동영상을 통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추미애 ‘선거법 위반’ 80만원 벌금형... 의원직 유지  
박영선 ‘선거법 위반’ 70만원 선고유예...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았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 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준지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동부지법 준지를 확보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   |   |   |   |
|---|---|---|---|
| <h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h4>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10px; width: 50px; margin: 10px auto;"> <b>전원주택<br/>강력추천</b>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auto; width: 80%;"> <b>광주에서 40분</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151평<br/>건물 42평 (준공2년)</li> <li>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br/>내부갈끔 / 주차 완비</li> <li>◆ 시세 1억5천만<br/>매가 1억1천만(용2천)</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동구 수기동 상가매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층 중 6층<br/>◆ 평수 45평</li> <li>천변로 전망 최고<br/>리모델링 완비<br/>주 차 완비</li> <li>■ 보 1천만-월 70만</li> <li>▶ 시세 1억6천<br/>매가 1억3천(용5천)</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상무지구 상가매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층 중 6층<br/>(23평) 코너자리</li> <li>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li> <li>보 500만 월 44만</li> <li>◆ 매가 8천 300만</li> <li>■ 북구 중흥동 모아 APT<br/>15층 중 10층 (50평)<br/>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br/>매가 2억3천</li> <li>■ 상무지구 상가매매<br/>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br/>상무지구 중심가 / 수월오피스텔<br/>매가 7천200만</li> <li>■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br/>15평 - 12층 (전망 최고)<br/>광양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br/>매가 3천만</li> </ul> | <h4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padding: 5px;">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br/>토 50평, 건 60평<br/>금보로 4가, 5가역 2분<br/>▶ 감정가 3억 → 최저가 2억1천</li> <li>■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br/>토 415평, 건 577평<br/>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br/>총 료 28개 ( 월수익 3,000만 예상)<br/>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br/>▶ 감정가 45억 → 최저가 31억</li> <li>■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br/>토 50평 건 27평<br/>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br/>▶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li> <li>■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br/>토 86평, 건 340평<br/>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br/>월수익 1,000만 예상 / 문선역 1분<br/>▶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8천</li> <li>■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br/>토 44평, 건 47평<br/>수완지구 국민은행 뒤<br/>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br/>▶ 감정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li> </ul> |
|---|---|---|---|